

# 남수현 “올림픽 영광, 전국체전서 다시 한번”

순천시청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개인전 은메달 “결과는 준비만큼 나오는 것”

“즐겁게 하자”는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 파리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이라는 좋은 성과로 이어졌어요. 이 기운을 전국체육대회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이어가야죠.”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동시에 목에 걸고 금의 환향한 양궁 남수현(순천시청)이 ‘쉽 없는 전진’을 약속했다. 파리의 영광을 뒤로하고 다음 달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남수현은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즐겁게 하자’를 목표로 세웠다”며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최대한 즐기면서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고 싶었는데 잘 이뤄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 앞서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은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받았다. 특히 남수현은 19세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남수현은 이번 대회 개인전 랭킹라운드에서 688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썼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 남수현(가운데)과 그의 부모가 지난달 24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 경남FC의 하나은행 K리그2 28라운드 경기에 앞서 시축을 진행한 뒤 전남일보와 단독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고, 단체전 랭킹라운드에서도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광역시청)과 2046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합작하며 우려를 단번에 지웠다.

그는 “첫 올림픽에서 첫 경기였기 때문에 많이 떨었다. 피해야 할 것 같았는데 생각을 했다”면서도 “언니들이 너무 잘 싸서 피해야 할 것 같았는데 생각으로 따라갔는데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회상했

다. 개인전과 단체전 랭킹라운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남수현에게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됐다. 이는 먼저 열린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한국은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의 위업을 이룰 수 있었다.

남수현은 “언니들과 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단체전 10연패를 꼭 해낼 수 있을 거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막상 경기장에서는 즐거웠고 합성에 힘이 났다. 서로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한 것이 영광스러운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자신감을 얻은 남수현은 개인전에서도 당당히 시상대에 섰다. 비록 결승에서 임시현과 집안싸움을 펼쳐 석패했지만 충분히 값진 은메달이었다.

그는 “단체전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개인전까지 결과가 따라온 것 같다”며 “언니들과 반대쪽 대진에 편성됐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제 경기력에만 집중하면서 언니들을 결승에서 만나자고 생각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올림픽이 막을 내린 뒤 남수현은 순천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가 됐다. 전남 소속으로 유일한 금메달리스트인 만큼 지역민들의 성원이 뜨거웠고,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MBC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순천에 내려오니까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고 길거리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며 “순천이나 전남 지역, 그리고 방송

등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남수현은 지난달 24일 지역 연고 프로 축구단인 전남드래곤즈의 초청을 받아 시축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순천시 명예 홍보대사로도 위촉됐다.

그는 “공은 잘 못 다루는 편이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너무 많은 응원 덕분에 잘 마친 것 같다”며 “이번 올림픽에서 이런 성과에는 지역민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수현의 다음 시선은 다음 달 경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로 향한다. 한국이 아닌 전남의 이름을 걸고 참가하는 만큼 임시현과 전훈영 등 올림픽 동료들과도 실력을 겨루게 된다.

그는 “올림픽에 이어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도 첫 참가다. 지난해 고등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체육대회 이후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바라보겠다. 4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꾸준히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있는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목표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전남도, 전국 전훈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10월31일~11월1일까지 2일간

전남도체육회와 ‘2024 전국 전지훈련팀 관계자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를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2일간 전남도내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지훈련팀 관계자들에게 전남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전지훈련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 및 팸투어에서는 타 시·도의 전지훈련팀 감독과 코치를 대상으로 전남에 소재한 스포츠포지사와 전지훈련 지원 인센티브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 종목별로 시·군 체육시설 현황을 직접 방문해 시설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전남에서의 전지훈련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가 자격은 타 시·도의 학교 운동부,

실업 및 프로팀의 감독이나 코치이며, 참가자 모집은 오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계자는 전남도청 스포츠산업과 전지훈련 담당자에게 전화(061-286-5540, 5541) 또는 이메일(kdjetlife@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오미경 전남도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국의 전지훈련팀 관계자들이 전남의 우수한 체육시설과 훈련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잡은 전라남도에서 참가자들이 훈련을 통해 한층 성장하고,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2023시즌에 1년 동안 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참여를 위해 전남을 찾은 팀은 2290개에 달하며, 73만 3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동환 기자



한국 보치아 국가대표팀 정호원이 3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남자 개인전 BC3 금메달 결정전에서 다니엘 미셸을 5-2로 꺾고 정상에 오른 뒤 지도자로부터 헝가리를 받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철원컵유도 전원 입상

금 2·은 1·동 1개 획득

광주교통공사 유도팀이 2024 철원컵 전국 유도대회에서 출전 선수 전원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교통공사 유도팀은 3일 강원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4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황수련이 여자일반부 -52kg급 결승에서 장예진(포항시청)을 안락축결기 절반과 누르기 한판을 따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혜미도 여일반부 -70kg급 결승에서 유예진(고창군청)을 상대로 허벅다리후리

기 한판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주연은 여일반부 -63kg급 결승에서 김재령(경남도청)에 무릎부상 기권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했다.

조운의는 여일반부 -52kg급 준결승서 이재란(성동구청)에 부상기권패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조선대 배경은은 여대부 -70kg급 결승에서 유단비(선문대)에 허벅다리후리기 한판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조선대 전지연은 여대부 -48kg급 결승에서 김민주(용인대)에 팔꿈기한판을 당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 ‘보치아 레전드’ 정호원, 韓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

남자 개인전 BC3 제패



‘보치아 레전드’ 정호원(강원도장애인체육회)이 한국 보치아 국가대표팀의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 획득을 이뤘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단 한차례도 정상을 놓치지 않은 쾌거다.

정호원은 3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남자 개인전 BC3 금메달 결정전에서 다니엘 미셸(호주)을 5-2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앞서 정호원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

으로 C조 1위를 차지하며 쾌조의 흐름을 조성했다. 이어 8강에서 줄스 메나드(프랑스)를 4-1, 준결승에서 다미안 이스크르츠키(폴란드)를 6-1로 연파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 나선 정호원은 1엔드부터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네 번째 투구를 표적구에 붙이며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고, 미셸의 실수가 나오자 다섯 번째 투구로 앞서던 공들을 표적구에 붙이며 3점을 확보했다.

정호원은 2엔드에서 1점을 추가하며 4-0으로 달아났고, 3엔드에서 미셸이 표적구를 멀리 굴리는 작전에 고전하며 2점을 허용해 4-2로 쫓겼으나 4엔드에서 다시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1점을 가져오며 5-2로 금메달을 확정 지었다.

이번 대회가 다섯 번째 패럴림픽 무대인 정호원은 개인 통산 성적을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늘렸다. 특히 1988 서울 올림픽부터 이어진 보치아 종목 10회 연속 금메달을 직접 완성하는 영광을 안았다.

정호원은 남자 개인전 금메달의 기세를 몰아 혼성 페어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2020 도쿄 패럴림픽 혼성 페어 금메달리스트인 정호원은 여자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강선희(한전KPS)와 호흡을 맞춘다.

한규빈 기자